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③방편종 ①십여시

방편이란 '방법, 교묘한 수단, 편리한 수단, 진실에 바탕을 두고 진실의 세계로 인도하는 수단' 등으로 해석되며,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설한 가르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種種因緣)과 갖가지 비유(種種譬喻)와 이론적인 이야기를 널리 펴서 말한 것(廣演言說)'이라고 방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진리란,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說法不可示 言辭相寂滅) 방편을 통해 진리를 나타낸다고 한다. 천태 대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설법을 적문(迹門)이라 하고, 모습도 이름도 없는 진리 그 자체로서 진리를 설하는 부분을 본문(本門)이라

며, 이렇게 무한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직까지 아무도 얻지 못한 최고의 진리를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勇猛精進 名稱普聞 成就甚深 未曾有法), 그 진리를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설하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隨宜所說 意趣難解)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보살이 갖추어야 할 일체지(一切智) 즉 평등상(平等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십여시(十如是)이다. 십여시란, 일체의 현상(現象)을 열 개의 카테고리(類)로 묶어 설명한 것이다. 즉 1)사물마다의 모습(如是相) 2)성질(如是性) 3)체상(如是體) 4)능력(如是力) 5)작용(如是作) 6)원인(如是因) 7)보조원인(如是緣) 8)결과(如是果) 9)과보(如是報)가 10)서로 다르게

보살로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

현상은 인연 모임, 실상은 하나의 대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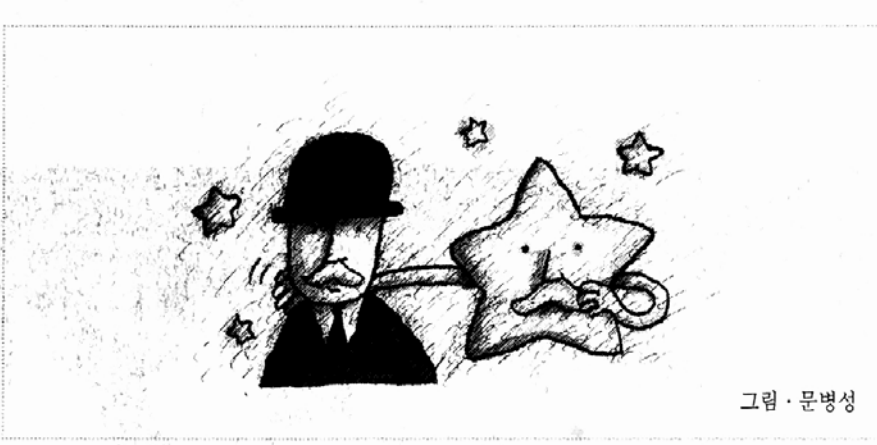
말한다.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님이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그 뜻에 맞도록 가르침을 설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근기에 관계없이, 묻는 사람이 없는데도 몸소 증득한 것을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 즉 무문자설(無問自說)인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적문의 부처님인 석존(釋尊)께서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어, 그 지혜의 법문 설법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諸佛智慧 甚深無量 其智慧門 難解難入, 일체의 성문과 득각(觸覺)인 벽지불은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一切聖聞 支佛所不能知,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수많은 부처님들을 섬기면서 갖가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많은 부처님들이 행하신 모든 수행을 그대로 몸에 익혀(所以者何 佛會親近 百千萬億 無量諸佛 盡行諸佛 無量道法) 온갖 장애를 용맹스런 마음으로 완전히 극복해 정진하니 그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로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으

보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한결같이 평등한 것이다(如是本末究竟等)는 말이다. 즉 현상계(有爲)의 모든 것은 천태만상이지만, 그 현상은 일시적인 인(因)과 연(緣)의 모임에 지나지 않을 뿐, 그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생명(眞理), 즉 절대(無爲)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만물만상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일체지를 증득토록 하여 보살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법화경>은, 부처님이 임시로 범정(凡情)에 순하여 세간의 욕락(欲樂)에 수응하는 교설(世界悉檀)이나, 중생의 근기를 살피고 각각 근기에 맞는 각각위인설법(各各爲人悉檀)이나, 번뇌 악업 따위의 중생의 미망을 없애는 대지설법(對治悉檀)이 아닌, 제일의(第一義)의 이치를 설하여 진증(眞證)에 들어가도록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오직 위없는 깨달음만을 설한다(正直捨方便 但說無上道).

■무설경사 조실



그림·문병성

변화에도 如如... '별의 해탈'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⑥**

불안정과 맥동

북극성 부근의 카시오페아 자리에 있는 델타 세페이드라는 4.5등급의 별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별은 5.4일을 주기로 밝기가 4등급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5등급으로 어두워 졌다가 되풀이한다. 이렇게 별 자체가 주기적으로 수축, 팽창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맥동 변광성'이라 부른다. 이 별의 경우에 크기는 10%약 백만km, 밝기는 2배정도 변화한다.

맥동 변광성에서는 별 중심부에 발생한 핵 에너지가 별의 표면층 부근을 지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별 자체가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는 맥동 운동이 일어난다. 맥동 현상은 별이 처음 탄생해서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또 별 내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메뉴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며, 늙어 가면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 맥동 운동이 일어난다. 맥동 현상은 별이 처음 탄생해서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또 별 내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메뉴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며, 늙어 가면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 맥동 운동이 일어난다.

별

주기적 수축 팽창 통해 안정될때까지 밝기조절

로 전달하는 과정이 완만치 못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별들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 형태의 맥동으로 밝기가 변화하는 변광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동 현상은 별이 태어날 때의 초기 질량에 따라 어떤 진화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광이 일어날지가 이미 결정된다.

별은 불안정해지면 맥동운동을 하거나 또 밖으로 물질을 방출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따라서 별의 경우에 불안정한 상태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안정을 회복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맥동에 의한 변광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주기적으로 수축·팽창함에 따라 밝기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고, 변광이 완전한 주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기성이 전혀 없어 변광하기도 한다. 별이 노년기나 쇠퇴기에 접어들면 주로 비주기적인 변광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별의 변광 주기는 수일 이내의 단주기에서부터 수백일에 걸치는 장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태양도 50억 년쯤 지나면 하루 정도의 변광주기를 가지는 맥동변광 단계를 거칠 것이다. 이때는 태양 중심부에서 헬륨이란 음식을 만들어 먹는 단계다.

인도의 옹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고 있는 것은 간다." 이것은 변화상태(‘가고 있는 것’)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진행

된다(‘간다’)는 뜻으로 만물이 유전 변천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별의 맥동현상도 별이 태어나 늙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주어진 변화에 순응하며 적응해 가기 위한 것이다. 인간도 별처럼 에너지(양식, 영양분)의 공급률이 변하거나 에너지의 전달 과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불안정 상태를 맞게 되는데 과연 별만큼 변화에 순응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정신적이나육체적으로 여러 종류의 불안정한 상태를 만나게 된다. 소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안정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외부의 영향으로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별의 경우와 달리 인간에게 닥치는 불안정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활하면서 외부로부터 양식을 얻는 과정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때문에 불안정의 주기성이나 그 형태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의 질 자체가 대체로 정신과 육체의 복합적 상호관계에서 기인하므로 별과 달리 정신적 불안정과 육체적 불안정이 상호 증폭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별처럼 밝기가 어두워졌다 밝아지는 변화의 조화

인간

유리하고 편한것 찾다 말년에야 소리 깨달아

여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회귀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표현일 뿐이다.

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함이 있고, 안정이 있으면 불안정이 있듯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는 상반되는 것이 거의 짝으로 나타난다. 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안정이나 불안정이 닦이면 자동적으로 그에 순응하기 때문에 편함과 불편함을 분별치 않으며 여여(如如)하게 지낸다. 다만 과정마다 순응, 적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간의 경우는 어떠한가? 불편함을 피하며 편한 것을 찾고, 불안정을 두려워하며 안정을 선호한다. 그래서 불안정이 닦이면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기적인 방법으로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지나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만사가 다 그렇고 그렇다"는 여여함을 느끼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대책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세가 변화에 대한 최소작용의 원리가 곧 불발법을 익혀 가는 올바른 수행의 길일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뉴욕테러 슬픔졌지만 종교간 화해 모색 계기

미국에서 종교간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종교의회(Parliament of World Religion)의 더크 피카(Dirk Ficca) 집행이사는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수많은 미국인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지 연구위원 장철 스님이 10월 30일 세계종교의회 시카고 본부에서 더크 피카 집행이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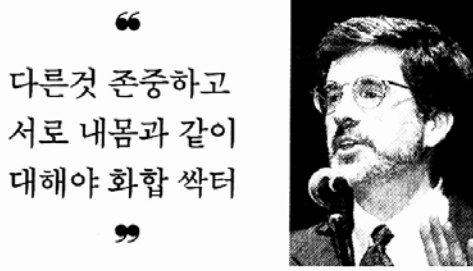
세계종교의회 더크피카 집행이사 인터뷰

◆미국 테러 참사 이후 테러 리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의 응징방식이나 대외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테러 피해국이기는 하지만, 군사보복 행위가 미국을 위해 올바른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폭력은 더 악화된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계는 '보복 공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이는 아랍계 나라 전체가 미국과 탈레반 정권의 전쟁에 참전하는 비극적 상황을 부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계종교의회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미 테러 이후 미국 내 아랍계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랍계 사람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총질을 한 백인이 '미국인으로서 할 일을 했다'며 뻔뻔이 말할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기독교계와 비기독교계의 분열은 물론 백인과 그 외 소수민족간의 갈등



다른것 존중하고 서로 내몸과 같이 대해야 화합 싹터

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종교의회는 국민들에게 테러리즘과 종교의 차이를 알리는 행사를 통해 양측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종교의회 시카고 본부에 '햇 라인'을 개설, 미국인들에 의한 아랍계인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해결하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테러 이후 세계종교의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 테러 이후 뉴욕 한 이슬람 사원에서 개최한 '철야 화합 범종교인 모임'에는 2천여 뉴욕 시민이 참여, '평화와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세계종교의회 시카고 본부에는 지금까지 수천통의 감사 편지와 격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미 테러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이슬람협회 세이드 모하메드(Sayeed Mohammed) 회장 역시 저와 같은 생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 모두가 서로 연관돼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서로 존경하고 내 몸과 같이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티베트의 종교지도인 달라이 라마의 "다른 것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 종교간 화합의 첫번째 강령인 것이죠. 결론하지 않으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시크교나 청정 수행자의 길을 따르는 불교의 만남, 고기를 먹으면 악업을 짓는 것으로 믿는 힌두교와 '고기는 삶'이라는 아프리카 토착종교의 만남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a.com

유체이탈, 쿨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매가플러스 기본시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매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론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알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매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부선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면 하연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컨트롤 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영가 천도재(49재) 안내

불자들의 건강과 안락을 기원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사정상 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지 못한 분들의 동참을 원합니다.

사업, 상업, 취업, 학기 소원성취와 질병, 재난등의 해소를 위한 조상, 일가, 친척들의 천도재입니다.

특히나 수자 영가(낙태아) 특별 천도재를 발원하니 산부인과 집도의사 그 가족 해당 어머니들의 동참 원합니다. 성불 합시다.

- 입재 : 2001년 양력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서예불 ~
- 결재 : 2001년 12월 22일 최왕(동지날) [영가 1인당 5만원 / 수자영가 1인당 3만원]
- 입금 : 국민은행 666-21-0285-909 예금주 지덕용

왕릉시 주지금애

三論宗 中興祖 大汕大宗師 舍利塔 除幕 및 1週忌 追慕大法會案內

귀의삼보 하옵고, 본 종단의 중흥조이신 대산당 이해봉 대종사의 사리탑 제막식 및 1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중도와 문도스님과 교계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오니 무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일시 : 불기 2545년 11월 25일 (음력 10월 11일)
-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539-21 우암정사
- 주최 :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대산문도회
- 후원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문의처 :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 021433-9780 우암정사 : 0431852-3000, 4000

불기 2545년 11월 14일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석혜승
대산문도회 회장 정추봉
대산문도회 일동